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 및 수상 소감

2021. 7.

주최 (사)아가포럼·대한건축사협회·한국경제신문

주관 (사)아가포럼·(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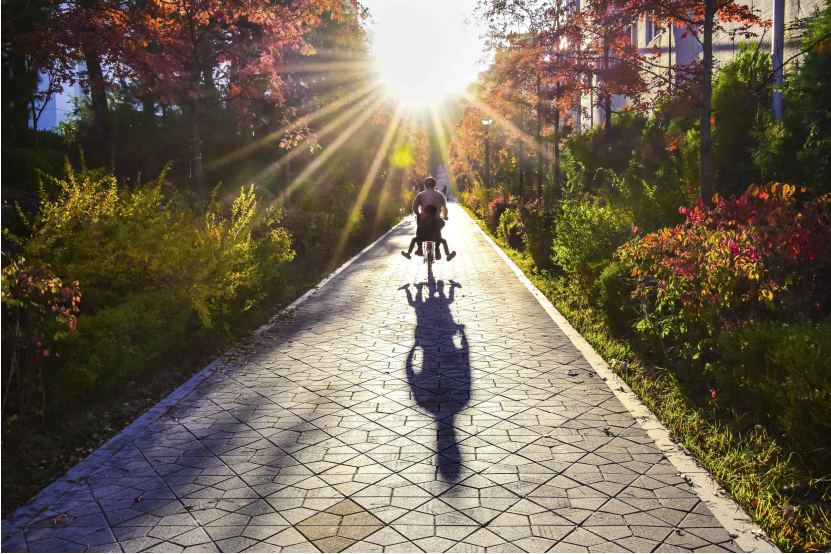
후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인천도시공사·부천도시공사·의왕도시공사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

한국주거학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소감
작가	박 종 배 (세종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휴대폰 문자소리,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공모전 대상 소식 잠시 멍한 마음에 한참을 쳐다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상장을 받고 수상소감을 쓰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배우고 찍게 된 사진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영광스런 순간이 있게 공모전을 주최해 주신 (사)아가포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부족한 사진을 선정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사)아가포럼의 무궁한 발전이 영원하길 기원 드립니다.
작품명	아빠와 함께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아파트 단지 내 산책길에서 자전거에 아들을 태우고 가는 아빠의 뒷모습이 긴 그림자와 함께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최우수상 -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수상 소감

작가 배 영 수 (경기 의왕시)

작품명 눈썰매 타고



폭설이 내리는 저녁, 아빠와 아이는 펑펑 내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눈에 썰매를 타고~ 또 넘어지고.. 큰 웃음소리 내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제6회 아름다운 아파트 사진공모전에 처음 응모해서 이렇게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아파트내 SNS에서 수상을 축하해 주신 분들, 또한 사진동호회 분들의 축하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작을 담게 된 이유도 카메라와 스트로보를 항상 곁에 두고 생활했기에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뜻하지 않게 큰 상을 수상함에 감사드리며 해가 거듭될수록 (사)아가포럼에서 주최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이 더욱 수준 높게 발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최우수상 -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상

수상 소감

작가 천 선 희 (광주 광산구)
작품명 20년 동안의 아이들의 모습



5살의 누나와 4살의 동생이 지라 온 집 앞 화단에서 20년만에 다시 안겨보다

처음으로 입주한 아파트 화단에서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누나 김경언 : 동생과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최우수상까지 받으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엄청 친한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 어릴 때부터 사이가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로 다시 한 번 가족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사진 하나로 가족 간의 행복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동생 김현빈 : 올려다보던 누나를 어느덧 내려다보게 되고 20년이란 세월이 지나 다시 그 장소, 비슷한 옷차림으로 누나와 뜻깊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기뻐합니다. 사진처럼 누나와 저를 건강하고 사이좋은 어른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작가 천선희 :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공모전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20년 동안 아이의 모습’은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우미3차아파트 화단을 배경으로 남매의 모습을 20년의 차이를 두고 찍었는데, 당시 5세였던 딸과 아들이 놀던 집 앞 화단에서 25살의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후 다시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이벤트를 하였던 것이 좋은 계기이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거공간과 삶이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로 모든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물하여 주었습니다.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우수상 - 한국부동산원 원장상

수상 소감

작가 이 명 재 (부산 해운대구)

작품명 가을비 우산 속

큰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 하겠습니다.



비오는 가을날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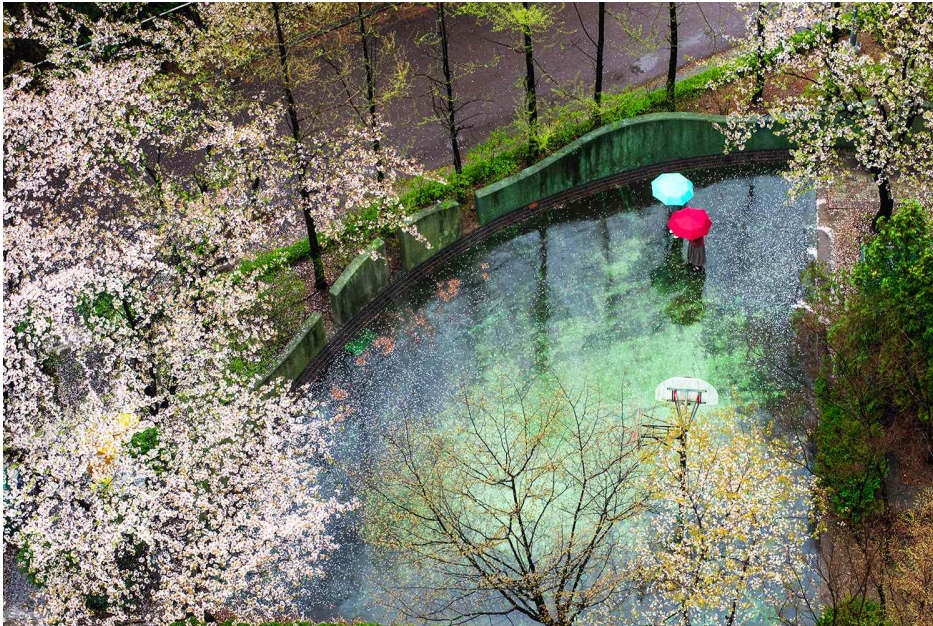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우수상 - 인천도시공사 사장상		수상 소감
작가	허 성 욱 (인천 연수구)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선정되어 주민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명	은하수가 내려온 우리 아파트	
		
집안에서 바라본 아파트 풍경이 마치 아름다운 은하수와 같아 표현해봅니다		

제5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우수상 - 부천도시공사 사장상		수상 소감
작가	오 창 식 (경기 용인시)	사진을 배우고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고, 이제 막 사진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어느 틈에 전 국민이 가장 갖고 싶어 하고 젊은이들의 꿈과 목표가 되었으며 우리들의 희노애락 이야기를 품고 있는 소중한 아름다운 삶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자 가장 아름다운 사진공모전을 주관하는 위대한 아가포럼의 깊은 의도에 동의하고 찬사를 보내며 더욱 좋은 사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명	꽃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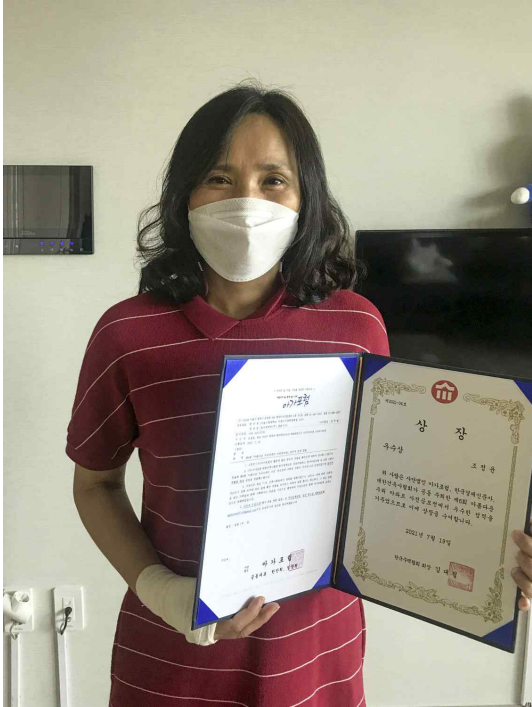
만발한 벚꽃이 꽃비가 되어 작은 놀이터 바닥을 하얗게 수놓는다. 그 꽃비를 밟으며 산책하는 우산 속 두 여인 이야기가 궁금하다. 아름다운 4월의 꽃비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삶 이야기이다.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우수상 - 의왕도시공사 사장상		수상 소감
작가	권 영 수 (경기 안양시)	안녕하세요.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공모전'에 저의 출품작을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공모전 개최를 알게 되었으며 마침 저희 아파트 놀이터 풍경이 '딱이다' 싶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출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명	엄마, 이쁘게	
 일요일 오후 아파트 놀이터에서의 행복한 가족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우수상 - 한국주택협회 회장상		수상 소감
작가	조 정 윤 (충남 천안시)	안녕하세요. 눈 내리는 겨울 어느 꼬마의 예쁜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예뻐서 저장해놓고 가끔씩 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또 우리 아파트 내 석가산 설경은 절경 중에 절경이지요. 이렇게 상까지 받게 해준 이름 모를 꼬마에게 감사하며 주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품명	설경	
		
1번 중정의 아름다운 설경을 담음		

제5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우수상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상		수상 소감
작가	백 명 옥 (서울 용산구)	우선,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에서 귀한 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모전 타이틀 대로, 아파트 조경이 근사하고 멋져야만 되는 줄 알고 고심하다가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옛 경의선 버려진 철길과 코레일 1량이 전시되어 있어 아파트와 한 프레임에 휴대폰으로 담았는데 이와 같이 귀한 상을 주셔서 매우 놀랐습니다. 좋게 봐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수상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놀랐으며, 코로나로 무미건조한 나날들을 보냈었는데 모처럼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품명	옛 경의선과 아파트의 조화	
 내가 살고 있는 원효동 구간에 옛 경의선의 버려진 철길과 코레일 1량이 아파트와 앙상블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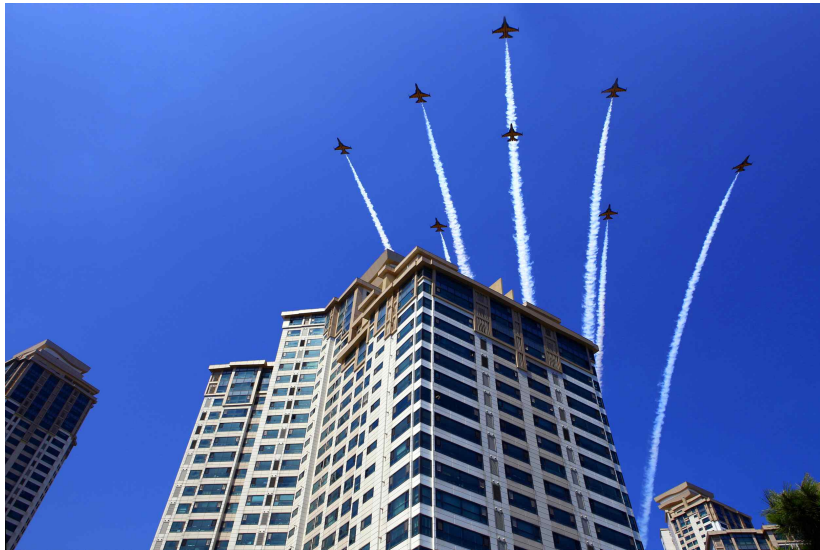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우수상 - 대한건설협회 회장상		수상 소감
작가	정 길 웅 (전북 진안군)	출품작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사진을 통해 진안에 멋진 마이산이 있음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작품명	아파트의 여명	
 눈이 하얗게 내린 겨울날 마이산을 배경으로 아담하게 서 있는 아파트에 동틀녘 여명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우수상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상

수상 소감

작가 서 용 수 (부산 남구)
작품명 창공에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제70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 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오륙도 앞바다에서 축하 비행공연을 위해 인근 아파트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가정의 중심이고 안식처인 주택이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주거 구조와 형태일까 늘 의문을 가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횡적인 공간 보다 종적인 공간을 무한정 확보하여 사람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가장 이상적인 주거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밀집된 도심지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가장 이상적인 주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존치하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 형태와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외형과 구조를 가지면서 실용적인 친환경 아파트로 거듭 신축되길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아가포럼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심사위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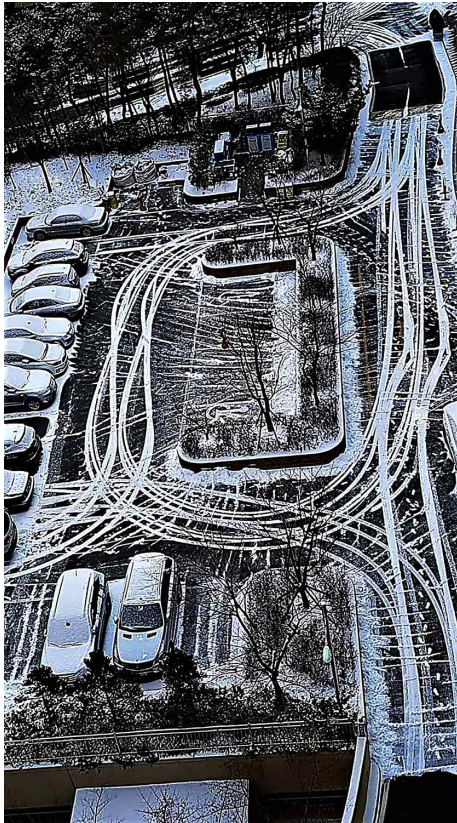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공감상 -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회장상

수상 소감

작가 한 용 권 (대구 달서구)

작품명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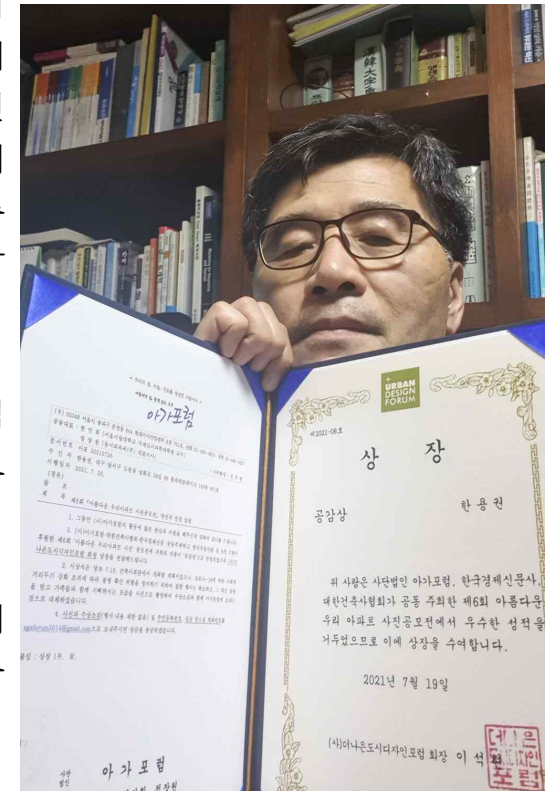
새벽 눈 오고 아침 공기가 몹시 차가운 날 출근 차량은 일부 빠져 나가고 제설 작업하였지만 차량 무게에 다져진 눈은 그대로 땅에 얼어붙어 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새벽 달 보며 졸린 눈 비비고 짜리 문 열고 나서는데 미친한 저의 사진이 揀擇(간택)되었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포럼 공모전에 응모한 많은 작가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오랜 시간 축적되고 내재된 것들의 이야기를 냄새나는 똥 사진 한 장으로 표현 했습니다만, 전문가님 들로부터 좋게 평을 받고 간택된 저의 사진 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택포럼 진행 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鳥足으로 먼 길 가는데 회초리로 종아리 때려 주시옵소서.....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공감상 -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회장상

수상 소감

작가 전 건 우 (세종시)
작품명 나의 왼발

그저 아이가 이끄는 자연스러운 장면을 담은 것이 기대이상의 수상을 하게 된 듯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공감할 수 있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왼발을 다쳐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한 채 오랫동안 불편했던 아이가 지하 주차장에서 밝은 연두색 올드카(독일 트라비)를 발견하고 절뚝이며 가서는 장난감 차로 착각해서 목발 없이 타고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기념 촬영함. (영화 '나의 왼발'이 연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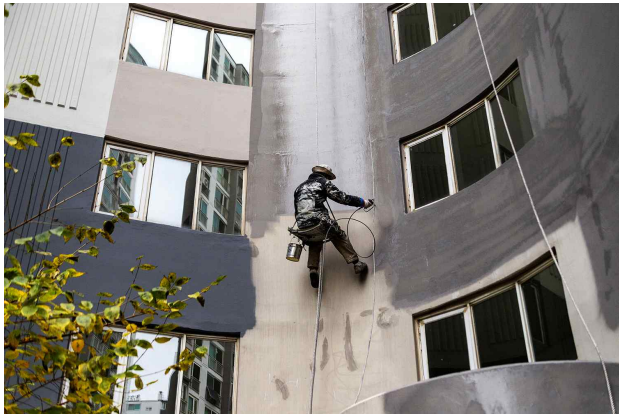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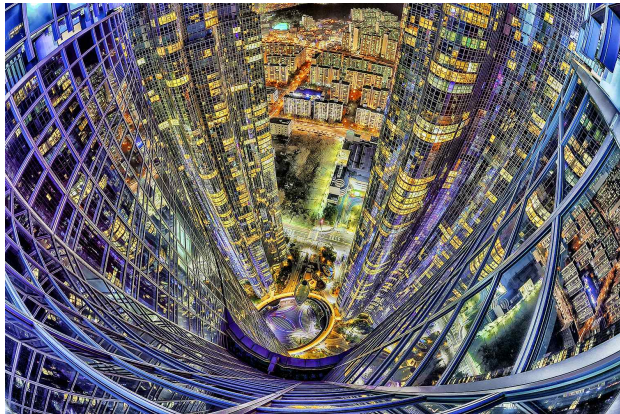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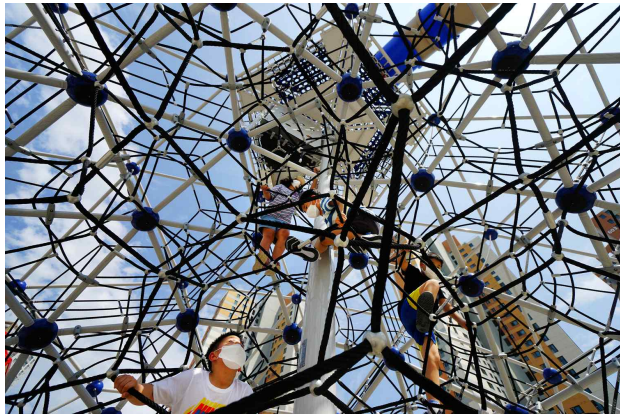
제5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입선 - 아가포럼 대표 상		수상 소감
작가	김 홍 배 (강원 양양군)	관계자 분들에게 먼저 입선작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 무의미하게 지나던 시간에 자식들에게 공모전에 입선하여 아버지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손주 녀석들과 상장을 들고 사진을 찍으니 그 또한 기쁨이 솟아나니,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제2의 인생을 사진인으로서 거듭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작품명	공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마우지가 강변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른 아침잠을 깨운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명종이 되어주기도 한다. 안개와 새들 속에서 붉은 아침 햇살이 피어나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는 아파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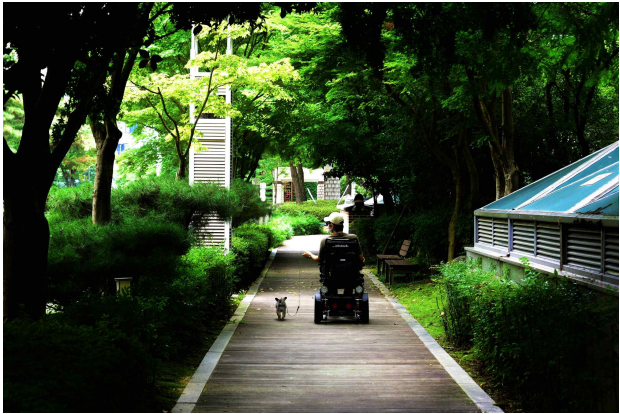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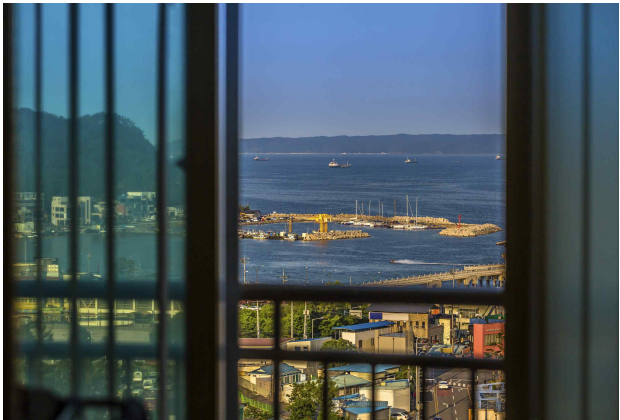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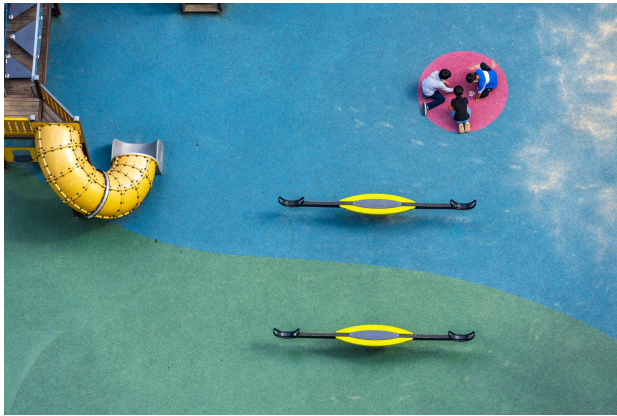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수상 소감

입선 - 아름다운주택포럼 대표 상		수상 소감
작가	오 명 인 (경남 거제시)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작품명	마스크와 함께 한 5주년 결혼 기념일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한 장씩 찍습니다. 올 해는 특별히 처음 분양받은 우리의 아파트에서 사진을 찍어보 기로 했어요 ^^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단지 내 이동 중 한 컷!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입선) - 아름다운주택포럼 대표 상

작 가	김 대 혜 (서울 강남구)	작 가	김 문 웅 (서울 성동구)	작 가	김 세 중 (서울 서대문구)
작품명	도시의 테트리스	작품명	꽃 단장	작품명	부산 제니스의 밤
					
작 가	김 택 수 (울산 중구)	작 가	김 향 숙 (세종시)	작 가	노 희 완 (대전 서구)
작품명	공존	작품명	아름다운 우리 동네	작품명	놀이터에도 마스크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입선) - 아름다운주택포럼 대표 상

작 가	박 선 (전북 전주시)	작 가	박 신 흥 (경기 성남시)	작 가	서 영 선 (대구 달서구)
작품명	나들이	작품명	건강 돌레길	작품명	우리 닮았나요?
					
작 가	손 병 혁 (경북 포항시)	작 가	여 인 환 (전북 전주시)	작 가	유 지 훈 (전북 무주군)
작품명	아파트 베란다 너머	작품명	작전	작품명	즐거움이 있는 아파트
					

제6회 아름다운 우리아파트 사진 공모전 당선작(입선) - 아름다운주택포럼 대표 상

작 가	윤 정 연 (경기 양주시)	작 가	이 완 희 (인천 서구)	작 가	이 준 용 (전북 완주군)
작품명	집으로 가는 길	작품명	제일의 국제도시	작품명	신나는 겨울 속으로
					
작 가	정 상 진 (경남 진주시)	작 가	정 승 혁 (인천 중구)	작 가	진 영 배 (전북 전주시)
작품명	집으로 가는 길	작품명	송도의 아름다운 야경	작품명	바람 불어 좋은 날
					

※ 당선작 :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8, 공감상 2, 입선작 20